

다산포럼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신사임당의 예술 재능 어디서 왔나?

는 어머니 행장(行狀)을 짓는다. 이에 의하면 사임당은 평소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걸 매우 즐겼고, 일곱 살 때부터 안전의 그림을 본으로 삼아 산수도를 그렸는데, 매우 정밀했다. 특히 포도를 그리면 모두 진짜 같다고 했는데, 병풍과 족자의 형태로 세상에 많이 전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행장> 마지막 부분에 40여한자로 구성된, 이러한 그림 관련 이야기는 시대의 관습에 따라 약화되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한다.

어쨌든 사임당은 아들 율곡과는 별개로 살아 있을 때부터 산수도 명인으로 이름이났다.

세종대에 안전이 있었다면 중종·명종대는 사임당이였다. 글씨와 시문으로 중국에도 그 이름을 날리던 소세양은 사임당의 산수도 두 편에 대한 글들에서 “신묘한 붓이 하늘 조화를 뿔었다”고 했고, 그외도 여러 사람들이 사임당 그림 솜씨를 극찬했다.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후천적인 노력으로만 될 일이 아닌 듯싶다. 그렇다면 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은 어디서 왔을까?

알다시피 신사임당은 강릉에서 태어나 자랐고, 혼인 후에도 이곳 친정에 머물며 자녀들을 낳아 길렀다. 친정이라 함은 친가 평산 신씨의 세거지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버지 신명하는 강릉과 큰 연고가 없던 서울 사람으로 강릉에 장가를 딸 다섯을 낳아 길렀다.

즉 사임당의 친정 강릉은 그녀의 친가가 아니라 외가가 있던 곳이었다. 그러면 다시 사임당의 외가라하면 어머니 용인씨의 세거지인가? 아니었다. 사임당의 외조부 이사는 역시 처가 최씨의 세거지 강릉으로 장가 온 사람이었다.

그는 강릉의 명문 사족 최응현(1428~1507)의 딸과 혼인하면서 강릉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최응현의 딸의 딸의 딸이 바로 사임당이다. 훗날 율곡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아버지, 즉 외조모)의 외조부인 최응현의 신도비명을 그 후손의 자격으로 짓게 된다. 사실 신사임당이나 이씨의 경제적 기반은 강릉 최씨에 연유한 바 크다.

여기서 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감지되는데, 바로 최응현의 손자 최수성(1487~1521)이다. 최수성은 문장 뿐 아니라 시·사·화·음률에 기

재(奇才)를 발휘한 인물이다. 당시 사람들은 최수성을 가리켜 “시는 이백과 두보에 못지않고 문장은 유종원과 한유에 못지않다. 필법은 왕희지에 견줄 만하고 화법은 고제지에 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절(四絶)이라 일컬어진 최수성, 그의 작품은 전해오지 않지만 사임당의 재능과 학습에 깊이 관련되었을 것이다. 생존 시거나 거주 공간을 볼 때 사임당은 당숙 최수성에게 직접 배웠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후의 딸이자 사임당의 손녀인 벽오부인 이씨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한다. 혈연 집단 내부에서 직간접적인 재능의 전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자료만 모아도 예술 관련 인자들이 줄줄이 확인되는데, 주변인들의 정보나 자료가 더 보태진다면 사임당이 야기는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울곡연 구원 소식지’ 제73호 전제)

신사임당은 우리 역사를 장식하는 대표 인물이지만 이 땅에 와서 머문 시간은 50년도 채 안되었다.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후 500년이나 되도록 계속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동안 나올 이야기 다 나왔을 테고, 자료 또한 한계가 있을 터인데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란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사임당과의 연결성이 전혀 없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자료지만 어쩌다 깊게 보고 넓게 보니 거기 또 새로운 이야기감이 들어있는 것이다. 신사임당은 과거 한 시기를 살았던 단 한 존재이지만, 그녀의 의미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따라 항상 열려 있는 존재이다. 사임당은 16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다. 사임당이 별세한 그해 16세의 이이

의료칼럼

## 어지럼증, 방치해도 되나?



김민성 수원청원연합병원 병원장

가 양호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치명적인 신경학적 질병과 관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사를 요한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말초신경계 및 전정기관의 이상, 중추신경계(뇌혈관) 이상, 자율신경계 이상, 심리적 이상으로 나뉘는데 먼저 전정 기관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어지럼증을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도 하며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증이나 전정 신경염, 메니에르병과 같이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어지럼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 뇌 관련 질환에 의한 것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 등이 해당한다.

있었다 일어설 때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빈혈이나 심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기립성 저혈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 노인성 어지럼증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현훈(眩暈)이라고 하며 ‘동의보감’에서는 어지럼증을 크게 ‘허증’과 ‘실증’으로 나뉜다. 허증(虛證)을 살펴보면 먼저 기혈허

(氣血虛)의 경우로 선천적으로 체력이 무척 약하거나 오랜 병을 앓았거나, 소화 기관이 약해 영양 섭취 부실로 기운과 피가 부족해 어지러운 경우이다. 특집혈이 낮고 마른 체질의 여성에게 자주 발생한다. 신음허(腎陰虛)의 경우를 보면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났거나 또는 육체적인 과로나 과도한 성관계로 인해 신장의 정기가 손상돼 골수를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해 뇌수가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발생한 경우이다. 특집적으로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수면 중 식은땀이 나는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한다.

실증(實證)은 먼저 간양상항(肝陽上亢)의 경우로 평소 억울하거나 분노의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속에 울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간의 양기가 위로 치솟아 올라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잘 생긴다. 또한 혈압이 높거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 빈발한다.

마지막은 담음(痰飲)으로 인한 경우로 평소 기름진 음식이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아 몸안의 잔액이 탁해져 머리로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평소 몸이 뚱뚱하거나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잘 생긴다.

현훈(眩暈)의 한의학적 치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침과 약침 등으로 머리와 목 주위에 경락을 풀어주고 율체된 간기(肝氣)를 소통시키며, 삼양의 열기를 내려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또한 개인 상태에 맞는 한약을 통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있거나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 등 허증(虛證)에 해당하는 어지럼증의 경우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을 통해 기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관리를 통해 지나친 스트레스의 위험을 피하고 지나친 다이어트, 폭음·폭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을 피한다. 또 충분한 수면과 과로를 삼가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평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과질환(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및 빈혈)에 대한 관리도 필수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어지럼증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이다.

기고

## 우리 한돈 안전하니 먹어도 ‘돼지’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잡지만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려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소매가격보다 하락 폭이 컸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ASF가 추가 발병하지 않아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반면에 소비는 줄어들면서 가격이 값은 하락세에 빠져 양돈 농가들이 세종시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물러가 집회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최근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4%가 돼지고기 소비를 작년보다 줄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안전성이 의심돼 돼지고기 소비를 더 줄일 계획이라고 했더니 이 땅의 양돈 농가들은 사면초가에 처할 지경이다.

하지만 실제 ASF는 돼지과(Suidae)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이어서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으며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데 불안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ASF의 병원체

는 DNA 바이러스로,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며 24종의 유전형을 가진다. 바이러스는 세포과는 달리 다 른 생명체(숙주)의 세포 안에 들어가야만 증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 세포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열쇠로 숙주의 세포에 있는 자물쇠를 열어야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ASF 바이러스의 열쇠는 사람의 세포에 있는 어떤 자물쇠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100여 년간 세계 여러 ASF발병국에서 현재까지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국제기구도 ASF는 사람 인체에 전혀 위해가 없음을 선포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돼지고

기를 굽거나 익히는 조리법이 대부분이다 생선류처럼 날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구이·찌개·볶음요리 등 고온에서 가열하는 조리법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부터 수입·유통 단계까지 이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통량과 소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감염된 돼지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우(杞憂)는 기인지우(杞人之憂)의 준말이다. ‘열자(列子)의 천서편(天瑞篇)에 나오는 말로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던 몸돌 곳이 없음을 걱정한 나머지 침식을 전폐하였다”고 한 데서 유래한 중국의 고사성어다. 이 말의 유래처럼 쓸데 없는 괜한 걱정으로 이 땅의 양돈농가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전 국민이 안전한 돼지고기 소비에 나서 주길 필자는 감히 부탁 드린다. 오늘 식탁에서부터 돼지고기 반찬을 올려 보시길...

社說

## 새 ‘규제자유특구’ 지역 혁신 성장 견인차로

광주와 전남이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이 주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제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과 북구 첨단산단 등 7개 구역 16.79㎢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무인 노면 청소와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 등 공공 서비스용 무인 특장차를 실증 시험하고 차량 운행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빅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한 나주 에너지 밸리 일대 19.94㎢가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여기에선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한전 등 16개 기업들이 참여해 현재 송전 방식인 교류(AC)에 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압 직류(MVDC)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한다. 이 사업에는 39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남은 지난 7월 영광·목포·신안 일대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특구를 갖춘 지역이 됐다.

이들 특구에는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돼 그동안 불가능했던 혁신 기술을 제약 없이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특구 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연구 개발 자금을 비롯해 시제품 생산, 특허 획득, 판로 창출 등을 지원한다.

이번 특구 지정은 광주의 경우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전남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신기술과 신산업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탄흔·탄피 등 헬기 사격 증거 차고 넘친다

옛그제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재판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항공대 소속 헬기부대 지휘관과 조종사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최근 골프를 치는 모습이 들뜬나 피고인 전 씨나, 전 씨측 증인으로 나선 육군항공대 지휘관·조종사들의 “거짓 증언”은 광주 시민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보여 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가장 명확한 증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를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감정했다.

이번 전 씨의 재판도 사실 전일빌딩 탄흔 발견을 계기로 시작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변주나 전북대 교수(간호학과)도 “1980년 5월 21일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남환에 씨 몸에서 빼낸 파편을 미국 무기실험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탄환 지름이 최소 6.5mm 이상인 철갑탄으로 자동 기관총 파편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9월 6차 공판에서는 육군 31항공단 탄약관리병이 “코브라 헬기 2대에 500MD 1대에 탄약 2500발을 지급했는데 회수했을 때 550여 발이 줄어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시민이 5·18 직후 습득해 보관해 오던 500MD 헬기에서 발사한 20mm 벌컨포 탄피 2점도 국과수에서 5·18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감정했다.

이처럼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다. 전일빌딩 탄흔과 벌컨포 탄피, 목격자, 총격 부상자 등 여러 증거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저들이 지금 아무리 부인해도 ‘헬기 사격’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無等鼓

올해로 창립한 지 50년이 된 삼성전자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인재였다. 1995년 당시 이견희 회장은 “핵심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남겼다. 이 회장의 방침대로 삼성전자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등용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 뒤 타 기업은 물론 각종 단체나 지자체 및 정부조직까지도 삼성의 인재 등용 및 양성 마인드를 았다뒤패워갔다.

인재 중시는 예나 지금

이나 다를 바 없다. 주나

라 성왕을 보좌한 주공은

좋은 사람을 보면 ‘먹던

음식을 내뱉고 감던 머리를 거머쥐며’(吐哺握髮) 영접해, 인재들을 끌어모았다. 천

하삼분지계로 유명한 제갈공명도 유비가 세 번씩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조가집에 찾

아오는 간곡한 성의(三顧茅廬)에 감동해 평생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했다.

브라이언 뉴베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높은 자기

성찰 지수, 윤리 의식, 소통과 협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

의 저자인 다니엘 핑크는 인재는 높은 기

술력을 기반으로 하이컨셉(High Concept), 하이터치(High Touch)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이컨셉은 예술적·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 트렌드와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능력, 서로 연관이 없는 것들을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총칭한다. 하이터치는 주변과 공감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인재는 상하좌우와 소통·협이하며,

조직 전체의 역량을 업

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남도가 민선 7기 들

어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능력을 갖춘 인재가 사장되지

않고,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직접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감

소, 고령인구 증가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남의 입장에서 인재는 다른 지역

보다 몇 곱절 더 소중한 것이다. 지금부

터 정성 들여 키워 낸 미래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향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고대한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